

페미니즘,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

특별기고 - 페미니즘

이택광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교수



페미니즘은 이제 낯선 말이 아니다. 영화 <해리 포터>에 출연했던 엠마 왓슨이 페미니즘 발언으로 주목을 받더니, 얼마 전에 개최된 오스카상은 정당한 여성의 몫을 주장하는 여배우들의 수상소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영국의 출판사 버소는 페미니즘 분야에서 고전으로 꼽히는 줄리엣 미첼의 <<여성의 지위>>를 비롯한 다양한 책들을 재출간했다. 그러나 이런 붐이 일어나는 것과 반대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여성혐오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여성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여성차별주의가 알게 모르게 일상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굳어 있다는 사실이다. 19세기에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이래로 여성차별을 극복하고자 했던 숏한 노력들은 상당한 결실을 맺긴 했지만, 또한 그만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다. 도덕적인 측면에 국한해서 말한 다면, 여성차별의 문제는 존 스튜어트 밀이 <<여성의 예속>>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성을 남성에게 예속시키는 것은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관점만 갖추더라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여성혐오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밀과 같은 관점은 전형적인 공리주의적 태도이기도 한데,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근대적인 패러다임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사회적 구성원에게 최대한 동등한 자



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는 사상이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이 근대의 정언명령이라면, 사회의 구성원 모두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무한한 성장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최초로 여성차별을 문제 삼은 사상은 자유주의였다. 그러나 여성운동에 투신했던 페미니스트들은 곧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다.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 받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면 여성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봤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되고, 여성운동의 성과가 일정하게 축적되기 시작하자, 또 다른 문제가 부각되었다. 자유주의에서 옹호하는 여성의 권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여성에 한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통념을 낳는다. 시민권이라는 용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민'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여성만이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자유주의자 존 로크는 노예무역에 투자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유럽의 백인을 의미했다. 자유와 평등을 옹호했던 로크조차도 노예를 경제적 재화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럽이 아닌 곳에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다른 인간들이 살고 있으리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연히 자유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지금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차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립이 필요하다

자유주의가 무의식적으로 전제했던 '백인 여성만의 권리'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노예여성의 권리도 백인 여성과 동일하게 보장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등장하는 것은 그래서 필연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사회적 소수약자와 연대하는 여성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성운동에 단조를 제공한 페미니즘은 참견권 운동부터 가부장제 비판까지 다양한 분화를 거쳤다. 가부장제에 지배당하는 가족주의에 대해서 여성의 분리를 주장하는 급진 페미니즘과 계급을 비롯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없이 여성해방도 있을 수 없다고 믿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화해하기 어려운 논쟁점을 갖게 마련이다.

한때 '신사회운동' 중 하나로 불리면서 기존의 사회운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페미니즘은 여성차별 이슈를 부각시키고 여성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역시 다른 정체성 정치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가시화되어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빈곤 문제를 문화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을 결속해주는 고유성에 대한 '인정욕구'로 대체해 버리는 한계도 노출하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지금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차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립이 요청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참여마당

이준희

(한국어학 2011)



힙합, 우리 청년들의 배출구

최근 음악 케이블 채널 'M.net'에서 인기를 모은 두 개의 효자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Show Me The Money'와 'Unpretty Rapstar'다. 이 두 프로그램 모두 힙합을 주제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음원 차트, 예능 프로그램, SNS 등에서도 힙합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힙합은 강한 비트와 직설적인 가사를 특징으로 하는 음악이다. 1970년 대 미국 흑인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이 생소한 음악은 수십 년 간 전 세계를 거쳐 1990년 대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2015년 현재, 힙합은 음악 시장 뿐 아니라 청년 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왜 우리 젊은 세대는 이 힙합이라는 자 극적이고 건방져 보이는 음악에 심취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저항정신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심리 상태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는 힙합에 대해 "자유에 대한 욕구, 억압과 차별 등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풀어낸다"며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진모 씨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 학업, 진로, 취업, 스펙 등으로 인해 어느 시대의 청년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 압박의 스트레스를 힙합이라는 음악 을 통해 대신 분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힙합은

현재의 젊은 청년들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두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우리 청년들의 특성 때문이다. 통이 큰 바지, 화려한 메탈 장식, 비틀게 쓴 스냅백으로 대표되는 힙합 특유의 의류 문화는 자신을 드러내 주목받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정신과 맞물린다. 이런 공통점은 힙합을 비주류 장르에서 거대한 주류로 올려놓기도 했다. 우리 청년들은 최대한 튀지 않고 침묵하며 대세를 따르는 것을 미덕이라 여겼던 기성세대의 생각에 반대했다. 정형화되고 획일화되어 자기표현에 제약을 받는 것에 과감히 반대하는 우리는 기존 음악 대신 튀고 개성 있는 힙합을 선택한 것이다.

세 번째, 우리는 솔직한 것을 좋아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솔직함'의 미덕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제 각종 매체에서 '솔직함'이 개인의 장점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체면과 의식을 챙겨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이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과거세대와 다르다. 현대의 청년들은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문화는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직설적으로 내뱉는 힙합 특유의 화법과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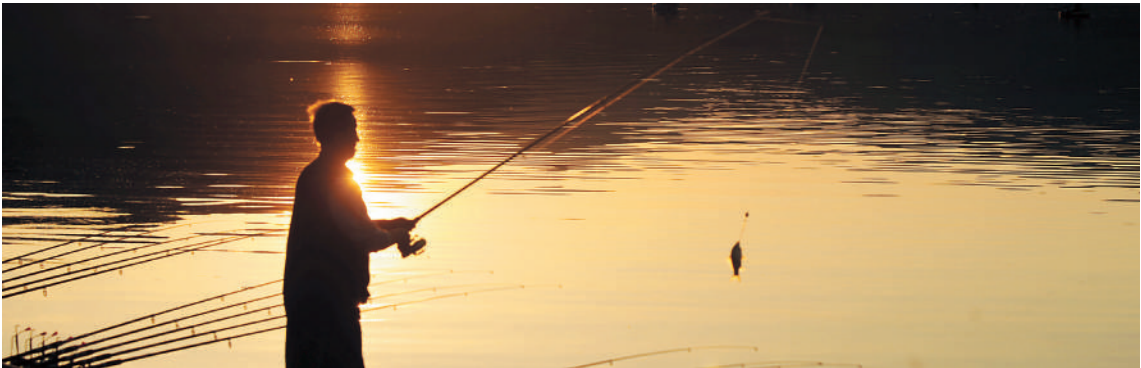
위의 세 가지 이유에서 볼 수 있듯,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힙합은 현재의 젊은 청년들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혹자는 '요즘 사람들은 힘도 패기도 없고 고분고분하기만 하여 저항할 줄도 모른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말은 옳지 않다. 부조리에 대해 우리 청년들도 충분히 분노를 느끼며, 실제로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꼭 외부로 표출하여 드러내는 것만이 저항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1면에서 이어짐

가는 곳마다 내가 좋을 일을 하면 동생은 나쁜 짓을 하며, 내가 이로운 일을 하면 동생은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합니다. 어쨌거나 나를 사랑하려거든 동생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종종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이 처해 있는 근본적 구조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늙어 죽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을 얻는 때가 있으면 잃는 때가 있게 마련이다. 앞의 것들은 뒤의 것들과 맞물려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드러나기에 우리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모를 따름이다. 우리가 내 눈앞에 일어난 행동들, 이를 테면 원하던 대학에의 입학이나 좋은 직장에의 취직, 혹은 연인과의 사랑에 마냥 기뻐하고 열광한다면 그것은 삶의 구조가 이 이야기 속의 자매와 같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행운의 여인은 불행의 여인은 늘 함께 하는 자매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둘 다 받아들이거



욕망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끝내는 절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 포기하거나 해야 한다. 어느 쪽이건 나끼지 않는 선택인데, 경전은 두 경우 모두를 말한다. 먼저 주인은 두 여인을 모두 쫓아버렸는데, 두 여인이 나란히 사라져 가는 것을 보자 주인은 마음이 후련해졌다. 이윽고 두 여인은 어느 가난한 집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그 집주인이 두 여인을 보고 반기면서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며 맞아들였다. 여기까지의 전개를 보고 모든 상황을 다 감내하려는 가난한 이의 태도를 예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전은 다음과 같이 반전된다. “태어나면 늙어야 하고, 병이 들면 죽게 되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두 가지에 다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함께 버리고 애착하지 않는다.”

우리가 얻는 것은 언젠가는 잃게 마련이니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경전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눈앞에 어떤 것이 있건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끝내는 절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끝내는 절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2015학년 1학기 학점인정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창업스쿨 강좌 개설

창업보육센터가 Mark Zuckerberg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캠퍼스 CEO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5학년 1학기 학점인정 강좌 안내

1. 개강 : 2015. 3. 2월)

2. 수강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생

3. 수강생 특전 : 창업경연대회 참가자격 부여 (입상자 장학금 지급, 동아리실 지원)
창업동아리 결성 시 다양한 경영지원(컨설팅, 멘토링프로그램, 사후지원비 등)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명의 창업강의 수료증 발급

4. 등록방법 : 인터넷 (<http://sugang.khu.ac.kr>)에서 수강신청(대학)

강좌명	학점인정	인원수	강의실/시간
창업경영과 기업가정신	자유이수 3학점	75	화요일 15:00~17:45 형운관 507호
모바일서비스와 플랫폼의 이해와 성공전략	자유선택 2학점	40	금요일 10:00~11:50 네오관 103호
문화컨텐츠와 비즈니스	자유선택 2학점	40	금요일 12:00~13:50 네오관 103호

5. 문의 및 안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네오리내스관 308호)
Tel : 02-961-9330~2 / Fax : 02-961-9333
E-mail : khed2825@khu.ac.kr

6. 후원 : **서울특별시** **SBA** **서울창조전문원**
캠퍼스 CEO